

# 김호 선생

(14)

김호 선생의 원명은, 김 끈산 단진, 은 1912년 6월 25일에 원동변강 영해주 하산구역에서 탄생하시었다

김호 선생은 1930년에 고향도시 근라쓰기노에서 사전을 필하시고 1934년에 원동변강 국영종합대학 경제학부를 필하였다.

1937년에 강제이국로 인하여 카자흐 공화국에 실려 왔으며 1937년 부터 알디꾸르간주 무스호베시에서 조선민위원회 재정부장으로 1946년 까지 일하였다.

1946년에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국제공산당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에 귀국 되었다.

북한에 도착하여 1946년부터 1955년 말까지 소비에트 연합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직책에서 일하시고, 1955년 말 부터 1957초까지 도량측정기기 관리 중앙위원회 위원장 직위에서 일하시었다. 그후 1957년 말까지 산업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직책에 계시고 1958년 초 부터 1962년 말까지 공화국 중앙은행 부총재 직위에서 일하시었다.

1962년 말에 소련에 귀국하였다.

모스크바에 도착한 김호 선생은 카자흐 공화국 알마아타에 하견하여 출판을 도우하였다.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지시를 따진 김호 선생은 알타이야드에 도착하여 사색은 (하정환)군 전체 가정성원들의 직업취직문제 학업지옥에 대한 문제등을 해결 받은 후 김호 선생은 소비트합 알타이야드 도위원회 직책에 임명되어 1972년까지 무려 십년간이나 일하시였다.

김호 선생은 1972년에 만 60세가 되자 최근에 공화국 공화금생 생활에 넘어가시였다.

김호 선생은 북한에서 일하시며 국가 품창으로 "국기출장" 2급, 3급을 수여받았으며 조선평북로 북히 여러 개의 배 달들을 수여 받았다.

2000년 1월 28일 하뉴켄호에서,